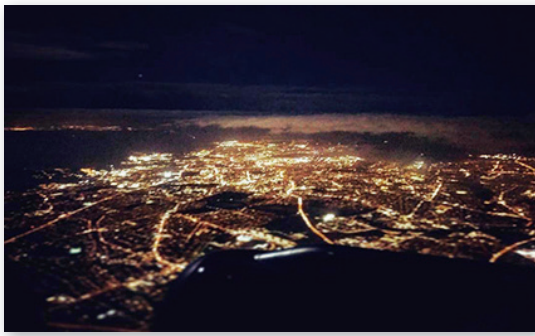




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
겨울 동화 속으로

4. 코펜하겐 도착

코펜하겐행 루프트한자 LH 0830은 결국 5시가 넘어서야 출발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는 이리저리 헤매며 뛰어 다니고 쪼그린 채 새우잠을 자며 기다린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생각해 보면 추억이 될 것 같았다. 30여 년 전에 프랑크푸르트에 와 보았던 일이 있는데 그때는 프랑스에서부터 자동차를 타고 왔었다. 괴테 박물관을 보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코펜하겐 야경

고 시내 구경을 하다가 저녁에 어디론가 가서 큰 광장같이 생긴 맥주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슈바이너첸'이라고 부르는 돼지 족발 요리를 먹었다. 엄청나게 많은 손님들이 역시 엄청나게 많은 기다란 테이블에 가득 앉아 즐겁게 떠들고 마시던 기억이 난다. 이미 날이 저물어 깜깜한 밤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가물거리는 먼 기억을 더듬으며 프랑크푸르트에 작별인사를 했다.

코펜하겐까지의 비행시간은 약 1시간 10여분. 독일에서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향해 가는 밤하늘은 철쭉같이 어두웠다. 얼마 되지 않아 곧 코펜하겐 국제공항에 도착한다는 기내 방송이 흘러 나왔다. 비행기는 검은 구름을 뚫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어느 순간 갑자기 보석같은 불빛들이 정답게 반짝거리는 코펜하겐이 나타났다. 창문 좌석에 앉은 나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가까워지는 그 모습을 흘린 듯이 바라보았다. 캄캄한 밤하늘, 짙은 구름 아래 화려한 다가오고 있는 코펜하겐은 마치 성냥팔이 소녀가 어둠 속에 성냥을 그어 불러낸 동화 속 환영 같았다.

어둠 속을 뚫고 날아 온 비행기는 활주로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오후 6시 20분. 밖은 완전히 캄캄한 밤. 터미널에 대기 위해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하얀 등으로 장식한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눈에 들어 왔다. 비행기는 금세 터

미널에 도착했고 나는 금방 짐을 찾아서 터미널을 빠져 나왔다. 특이한 것은 입국 수속 없이 그대로 입국하는 것. 아무도 여권을 보자고 하지 않았다.

코펜하겐 공항은 매우 아늑한 공항이었다. 자그마한 사이즈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차가운 형광 불빛이 아니라 따뜻한 느낌을 주는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했고 뭔가 둥글둥글 부드러운 분위기에 깨끗하고 조용해서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ROI 보이지 않는다. 게이트에서 나오면 거기 서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어디로 갔지? 공항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문득 위를 올려다보니 이층에 앉아 자고 있는 ROI 보였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벤치에서 백팩을 끌어 안고 자고 있는 ROI의 옆에 살며시 앉았다. 무척 고단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잔다. 어깨를 만지자 눈을 뜨고 '어, 엄마!' 하며 반가워한다. 우리는 집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덴마크에서 다시 모녀 상봉을 했다. 사실 어제 헤어졌지만 R은 런던, 나는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따로 날아와 무사히 만난 것이 새삼 애틋하고 감격스러워 한참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며 기뻐했다. 지구라는 거대한 세상에서 코펜하겐이라는 좌표를 정해 놓고 막막한 하늘을 날아와 이렇게 정확하게 만나다니! 나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이 축복임을 확신했다.

우리는 너무 피곤해서 빨리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기 위해 공항을 빠져 나왔다. 앗, 추워! 처음으로 들이마신 북구의 겨울 바람에 놀라 몸이 움츠러들면서 하얀 입김이 새어 나왔다. 밖에는 뽀얀 씨락눈이 내려 있었다.

가정의 달 프로모션

염색+펌 → Free 트리트먼트 or 포인트 하이리잇
5월 1일부터

* 남자 컷	\$ 15
* 여자 컷	\$ 25
* 펌 + 컷	\$ 60
* 염색 + 컷	\$ 60
* 헤나염색 + 컷	\$ 55
* 셋팅펌	\$ 80 up
* 매직펌	\$ 100up

네일 페디큐어 오픈!
* 예약 해주세요 *

Tel. 714.356.7042

DIVA Hair Salon 1180 S. Idaho St
디바 헤어살롱 La Habra, CA 90631

JOY 핸디맨 & 플러밍



물
새
요
:

연락주세요.

제이킴
24시간 714.249.5469

칠포 해물탕

CHIL PO KOREAN RESTAURANT



해물탕



아구찜



20주년 기념 감사 이벤트
모든 소주류 **\$4.99**
가족모임 /골프후 회식을 위한 대, 소 연회석 완비



돼지불고기 쌈밥
불고기 쌈밥
생선 쌈밥

항실보쌈

항상 칠포 해물탕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62.809.0057 17303 Pioneer Blvd, Artesia, CA 90701